

계용묵과 평북 방언

유서현*

[초 록]

이 글은 계용묵의 평북 방언 활용이 단순히 모어의 구사라는 차원을 넘어 그의 문학적 지향점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살펴보는 글이다. 2장에서는 1935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작품들에 비해 이후의 작품들에서 평북 방언이 크게 확대된다는 점을 들어 계용묵의 평북 방언이 무의식적인 자연어가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인 문학어였음을 밝힌다. 1935년은 계용묵이 경성 중앙문단에 대한 비판 의식을 바탕으로 평북 출신의 문학청년들과 함께 동인지 『해조』를 준비하던 시기로서, 그의 작품 속에 평북 방언이 ‘뒤늦게’ 등장한 까닭은 이와 같은 정황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3장에서는 잡지에 게재된 작품과 단행본으로 출간된 작품 간의 개작 양상을 방언을 중심으로 살핌으로써 계용묵이 그의 문학세계를 정비하는 데 있어 방언의 존재를 중시했음을 밝힌다. 20세기 초 경성에서 활동한 주요 근대문인들이 배타적으로 중앙문단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강사

주제어: 계용묵, 평북방언, 표준어, 방언, 문학어, 지역성
Kye Yongmook, Pyongbuk Dialect, Standard Language, Dialect, Literary Language, Locality

당시 표준어와 방언 사이의 비가시적인 서열을 공고화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계용묵이 그의 문학적 분기점마다 평북 방언을 강화해나갔다는 점은 그 특이성과 의의를 재조명받아야 마땅하다.

1. 들어가며

계용묵(1904~1961)은 1925년 『조선문단』에 「상환」을 발표하면서 등단한 작가이다. 그는 창작가로만이 아니라 편집자·출판인·번역가로서도 왕성히 활동했다. 일제 말기에는 『조선일보』 출판부에서 근무한 바 있고, 해방기에는 백인제와 함께 출판사 수선사(首善社)를 설립하여 다수의 소설과 연구서를 발간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뒤에는 제주도 피난을 가 한동안 지내는데, 그곳에서 잡지 『신문화』와 『흑산호』를 펴내면서 제주도 문학을 재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말년에는 다시 서울로 돌아와 주로 수필 쓰기와 번역에 몰두한다. 『새가정』에 세계명작에 나타난 여성의 삶을 살펴보는 수필을 오랫동안 연재했으며, 톨스토이의 『참회록』, 도스토예프스키의 『악령』, 릴케의 『말테의 수기』 등 여러 작품을 번역했다.

이처럼 계용묵은 등단 이래로 1961년 타계하기 전까지 창작·편집·출판·번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힘써온 작가이다. 그러나 오늘날 그는 「백치 아다다」와 「별을 헨다」의 작가로만 기억될 뿐 활발히 연구되지는 않는다. 이는 그가 평생을 단편소설로만 일관해온 과작의 작가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1970~80년대 계용묵에 대한 초기 연구자들이 민중민족문학론의 자장 속에서 계용묵의 문학을 현실인식의 결여로 통렬하게 비판했기 때문이기도 하다.¹⁾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이 다소

1) 1970~80년대 계용묵 연구에 대해서는 이주형(2005), 「계용묵 소설 연구」, 『어문학』 87, 한국어문학회, pp. 644-645를 참조. 이주형 역시 이들 선행연구의 시각과

나마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에 이르러서라고 보인다. 특히 계용묵이 장애인 인물을 빈번하게 등장시켰다는 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소수자성·타자성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²⁾ 이 연구들은 한국사회의 담론 변화에 따라 계용묵의 문학을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대부분이 「백치 아다다」 한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계용묵 문학 전반을 검토하는 작업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 글은 계용묵의 문학을 독해하는 한 가지 새로운 방안으로서 그의 방언 활용의 변화에 주목하려는 글이다. 계용묵은 평안북도 선천군 남편 삼성동 군현리에서 태어나 1937년 서울로 이사하기 전까지 성장기의 대부분을 선천에서 보냈고 고향에 대한 애정도 상당한 편이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계용묵의 작품에서는 평북 방언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그간 계용묵의 문학을 독해할 때 방언이

크게 다르지 않게 계용묵의 문학은 시기에 따라 그 소재만 바뀔 뿐 모두 현실 속 모순의 원인을 파악하거나 극복을 위한 투쟁 의지를 보이지 않는 허무주의에 그친다고 평가한다.

- 2) 양윤의(2014),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이형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60, 한국문학연구학회; 김명숙(2014), 「현대문학 작품에서 본 ‘추’의 형상의 심미적 가치」, 『한중인문학연구』 42, 한중인문학회; 김용성(2016), 「계용묵의 「백치 아다다」에 나타난 여성, 종교, 장애 다시 보기」, 『문학과종교』 21(2), 한국문학과종교학회; 최강민(2016), 「광산과 광부 소재 소설에 나타난 재난의 서사와 질병」, 『어논논집』 68, 중앙어문학회; 신승희(2019), 「계용묵의 백치 아다다에 대한 인물 분석」, 『아시아문화연구』 50,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등을 거론할 수 있다. 한편 이외에도 ‘해방기 귀환서사’와 ‘전쟁기 제주문학’이라는 측면에서 계용묵의 문학에 접근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이정숙(2011),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귀환의 양상 고찰」, 『현대소설연구』 48, 한국현대소설학회와 왕한(2019), 「해방기 귀환소설 「별을 헨다」의 현실성과 초월성」, 『춘원연구학보』 14, 춘원연구학회 등이 해당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김동윤(2005), 「계용묵의 제주 체험과 문학」, 『영주어문』 10, 영주어문학회; 박태일(2009), 「1950년대 전쟁기 문학과 제주의 지역성」, 『한국언어문학』 71, 한국언어문학회; 김동윤(2010), 「전란기 제주문학과 『제주신보』」, 『영주어문』 19, 영주어문학회 등이 해당한다.

라는 요소를 염두에 두는 경우는 드물었다. 여기에는 한국문학과 한국어학이 상보적인 관계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습적인 영역 구분이 연구의 공동화 현상을 낳았다는 오래된 지적³⁾이 여전히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용묵의 작품 속 방언을 살펴보는 것은 지역 방언의 통시적 연구를 위해서도 유용할 뿐 아니라⁴⁾ 그의 문학을 새롭게 독해하는 데도 중요하다. 계용묵의 평북 방언 활용은 단순히 모어의 구사라는 차원을 넘어 그의 문학적 지향점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계용묵이 창작 활동을 시작한 1920년대 중반은 주지하듯이 신문학을 표방하는 근대문단이 형성되는 시기였다. 근대문학이란 내용만이 아니라 언어부터도 근대적이어야 했던바, 이 시기 문인들이 표준어와 방언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언어통일이라는 목표하에 ‘한자’와 ‘방언’을 배제하면서 ‘표준어’가 정립되기 시작하자 각지의 지방어로 문학을 창작해오던 문인들이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이다. 초기에는 언어통일을 중시하는 ‘표준어파’ 문인들과 지방색을 중시하는 ‘사투리파’ 문인들이 고루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⁵⁾ 그러나 편의적으로 정립된 표준어가 점차 보편성을 넘어 ‘올바름’이라는 가치를 획득하게 되면서 방언은 특수함을 넘어 열등하거나 우스운 어떤 것으로서 간주되기 시작했고, 표준어와 방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위계가 세워지게 되었다.⁶⁾

3) 이기문 외(2001), 『문학과 방언』, 서울: 역락, p. 5.

4) 김태엽은 지역 방언은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문헌이 적기 때문에 통시적인 연구가 쉽지 않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지역 방언을 분석하여 오늘날의 방언과 비교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김태엽(2006), 「김동리 소설에 나타나는 경북 방언」, 『우리말글』 38, 우리말글학회, pp. 2-3].

5) 한국 근대문학 초기의 표준어 — 방언 논의 및 표준어파·사투리파 문인에 대해서는 정승철(2017), 「채만식과 방언」, 『관악어문연구』 4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pp. 61-69; 정승철(2018), 『방언의 발견』, 파주: 창비, pp. 109-124를 참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계용묵의 방언 활용 양상에는 독특한 면이 있다. 일반적인 경로와는 반대로 그는 자신의 문학의 중요한 분기점마다 평북 방언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첫째로, 계용묵은 1935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작품들에 비해 이후의 작품들에서 평북 방언을 풍부하게 구사하고 있다. 즉 「상환」(1925), 「최서방」(1927), 「인두지주」(1928) 등 초기 작품들은 표준어를 기반으로 창작된 반면, 「백치 아다다」(1935), 「유앵기」(1939), 「불로초」(1942) 등 1935년 이후부터 해방 전까지의⁷⁾ 작품들은 평북 방언을 전면적으로 드러낸다. 등단한 지 10년이 지난 후에야 계용묵의 지역 방언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은 그것이 무의식적인 자연어가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인 문학어였다는 것을 알려준다. 본고는 2장에서 계용묵의 1920-30년대 작품들의 방언 활용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1935년이 기준점이 된 이유와 관련하여 당대 문단에 대한 계용묵의 인식 및 창작 태도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로, 계용묵은 일제강점기에 창작한 작품들을 모아 단행본을 출간할 때 작품 속 평북 방언이 더 선명해지도록 개작 과정을 거쳤다. 그는 1944년에 첫 단편집 『병풍에 그린 닭이』를, 1946년에 두 번째 단편집 『백치 아다다』를 발간하는데, 두 단행본 모두 출간 시기 기준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충실하게 따르면서도 인물들의 대사는 평북 방언이 더 정확하게 구사되도록 고쳐져 있다. 이 점 또한 계용묵이 그의 문학세계를 정비하는 데 있어 방언의 존재를 중시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고의 3장에서 이상과 같은 내용을 논의하면서 잡지본과 단행본의 방언 활용 양상을 비교할 것이다.⁸⁾

6) 김도경(2012), 「표준어의 이념과 ‘사투리’의 탄생 — 1920년대 문학에서 표준어와 방언의 문제」, 『어문학』 117, 한국어문학회, pp. 342-350.

7) 해방 이후의 작품들부터는 다시 평북 방언의 흔적이 사라진다. 이것은 남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2. 평북 방언의 ‘뒤늦은’ 등장과 1920~30년대 계몽문학의 변화

찾은 절필기를 가지며 과작의 작가로 남게 된 계몽문학은 등단한 해인 1925년부터 1934년까지 10년 동안 단 네 편의 소설만을 발표했다. 「상환」(1925), 「최서방」(1927), 「인두지주」(1928), 「제비를 그리는 마음」(1934)이 그것인데, 이 작품들에서는 모두 평북 방언의 문법 요소를 찾아보기 어렵다.

- (ㄱ) 내가 너이들은 그래도 불상한것이라고 특별이떡여살넷것만
(「최서방」, 47)
- (ㄴ) 그럼 오늘도 안주겠다는 말이요 말이(「최서방」, 38)

8) 본고에서 평북 방언을 분석할 때에는 이기갑(2003), 『국어 방언 문법』, 서울: 태학사; 최명옥(2003), 「서북방언」, 『방언학 사전』, 서울: 태학사; 정의향(2019), 「평안도 방언 연구의 회고와 전망」, 『방언학』 30, 한국방언학회를 참고했음을 밝힌다. 또한 본고에서 다루는 작품들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 「상환」, 『조선문단』 8, 1925.5.
- 「최서방」, 『조선문단』 20, 1927.3.
- 「인두지주」, 『조선지광』 76, 1928.2.
- 「제비를 그리는 마음」, 『신가정』 13, 1934.1.
- 「백치 아다다」, 『조선문단』 23, 1935.6.
- 「장벽」, 『조선문단』 26, 1936.1.
- 「고질」, 『백광』 6, 1937.6.
- 「병풍에 그린 닭이」, 『여성』 34, 1939.1.
- 「유영기」, 『조광』 40, 1939.2.
- 「강가르의 조상이」, 『조광』 43, 1939.5.
- 「심월」, 『조광』 70, 1941.8.
- 「불로초」, 『춘추』 17, 1942.6.
- 「자식」, 『야담』 86, 1943.2.
- 『병풍에 그린 닭이』, 조선출판사, 1944.
- 『백치 아다다』, 대조사, 1946.

본고는 모두 위 원문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하 인용 시 괄호 안에 작품명과 인용 면수만 표기한다. 인용문의 모든 강조는 인용자의 것이다.

- (ㄷ) 자네들— 제비가 들어오지않으면 어떤고?(「제비를 그리는 마음」, 202)
- (ㄹ) 그러나 여기서는 기위시작한것이고 박남회도몇칠안남엇스니 이곳에서썩어나는날자네를 차저감세(「인두지주」, 147)
- (ㄹ) 그럼어제밤에 정신을 도모지 몰낫습니다그러. 그런데 들으섯 겿지만은 아츰에 金弘得이라는사람이차저왔스니 무슨만날 일이게시우 무슨긴급한일인지 매우긴급한일이라하면서 저녁새오겿다고합디다 그러.(「상환」, 58)

(ㄱ)~(ㄹ)에서 볼 수 있는 주격 조사 ‘가’, 선어말 어미 ‘-겠-’, 연결 어미 ‘-면’과 ‘-니’, 종결 어미 ‘-그러’는 각기 평북 방언의 ‘레’(내레), ‘갓-’(안주갓다), ‘-문’(얹으문), ‘-니께’(안남엇스니께), ‘-레’(몰낫습니다레)에 대응하는 중앙어의 문법 요소이다. 종결 어미들은 (‘-그러’처럼 확실히 평북 방언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면) 평북 방언형으로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평북 방언과 중앙어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이기에 방언학적으로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음운적 요소는 문법적 요소에 비해 좀 더 살펴볼 여지가 많다. 평북 방언의 음운상 특징 가운데 하나는 모음 [i·j] 앞에서 ‘ㄴ, ㄷ, ㄸ, ㅌ’이 탈락되지 않고 유지된다는 점이다. 「상환」, 「최서방」, 「인두지주」, 「제비를 그리는 마음」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다음과 같이 찾아 볼 수 있다.

- 「상환」: 단명, 부명, 봉턴 / 녀편네, 냥약, 녀비
- 「최서방」: 경련덕, 명거장, 명처, 목덕, 테면, 턴하, 던답 / 년명, 년상
- 「인두지주」: 던긔, 발던 / 녀자
- 「제비를 그리는 마음」: 녀녀

그러나 이 또한 평북 방언의 요소로 간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위 예시들 중 ‘뎡거장’, ‘테면상’, ‘뎡하’, ‘뎡답’, ‘뎡긔’, ‘녀즈’, ‘뎡려’ 등 상당수의 단어들이 심의린이 편찬한 『보통학교 조선어사전』(1925)에 표준어로 등재되어 있고, 이로 미루어 보아 나머지 단어들도 표준어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ㄴ’ 유지 단어들의 경우 만약 그것이 평북 방언이었다면 [j]가 탈락하여 ‘네편네, 낭약’ 등과 같은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⁹⁾ 그러나 이 시기에는 그러한 음운 현상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또한 표준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평북 방언을 모어로 가진 계용묵이 완벽하게 표준어를 구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같이’는 계용묵의 작품에서 여러 차례 표기가 바뀌는 대표적인 단어인데, 이를 통해 그가 표준어와 방언 사이에서 혼선을 빚는 장면을 엿볼 수 있다. 시기 순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ㄱ) 1925 문고리소리와가티문이열니고 昌洙가들어선다.(「상환」, 55)
- (ㄴ) 1927 우리는 외이갓치 눈물을썩리며 조국을 썩나지안으면 안되노?(「최서방」, 49)
- (ㄷ) 1928 그것은맛치기생에게로 달녀들냐는갓티보히였다.(「인두지주」, 142)
- (ㄹ) 1928 그래나무를하러가도 가치단이고 일을가도갓치단엿섯다”(「인두지주」, 145)
- (ㄱ) 1928 그째자기도 썩씩업시 죽을 것을 갓티일하든 동무들이 구…해서(「인두지주」, 146)
- (ㄷ) 1934 아버지더러 같이떠나기를 간청하였으나”(「제비를 그리는 마음」, 200)

9) 실제로 계용묵은 「유앵기」를 단행본에 수록하면서 본래 ‘여자’와 ‘녀자’였던 것을 모두 ‘녀자’로 고쳤다. 잡지 발표본과 단행본의 방언 차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상술한다.

- (ㄱ) 1935 그 돈을 다 탕진하고 물거품같이 밀려돌다가(「백치 아다다」, 33)
- (ㅇ) 1936 어느때나 남과같이 같은자리에 석겨서 맘대로 뛰놀고?(「장벽」, 20)
- (ㄴ) 1939 얇전이같이 김잘매구 배잘짜는 여자를 구한다니께(「유앵기」, 333)
- (ㄷ) 1939 벗들로 어깨를 가치하고(「유앵기」, 340)
- (ㄷ) 1942 하라버지는 한숨과 가치 끄 하고 갑으며(「불로초」, 149)
- (ㄷ) 1943 감탕 우에는 동굴하게 난 채바퀴 자리가 올림픽 마크 가치 연달렸고,(「자식」, 102)
- (ㄷ') 1944 얇전이 가치 김 잘 매구, 배 잘 짜는 네자를 구한다니께(「유앵기」, 39)
- (ㄷ') 1944 벗들로 어깨를 가치하고(「유앵기」, 58)
- (ㄷ') 1944 하라버지는 한숨과 가치 끄 하고 갑으며(「불로초」, 290)
- (ㄷ') 1946 돈을 다 탕진하고 물거품 같이 밀려 돌다가(「백치 아다다」, 48)
- (ㅇ') 1946 어느 때나 남과 가치 같은 자리에 석겨서 마음대로 뛰며 노라볼고?(「장벽」, 14)
- (ㄷ') 1946 감탕 우에는 동굴하게 난 채바퀴 자리가 올림픽 마크 가치 연달렸고,(「자식」, 186)

(ㄱ)~(ㄷ)은 잡지에 발표된 것이고 (ㄷ')~(ㅇ')은 단행본으로 출간된 것이다. 대체로 1930년대 중반부터는 ‘같이’로, 다시 1940년대부터는 ‘가치’로 일관성을 유지하려 한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1920년대 중후반의 초기 작품들에서는 특별한 규칙을 발견하기 어렵게 다양한 표기 양상을 보인다. 『보통학교 조선어사전』에 따르면 이 시기의 표준어는 ‘합씨’의 뜻이든 ‘갯계’의 뜻이든 ‘갯치’였다. 그러나 평북 방언에서는 앞서 언급했듯 ‘ㄷ’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티]와 같이 발음된다. 이러한 음운 규칙의 충돌이 계용묵으로 하여금 무의식중에

평북 방언의 요소를 드러내게 했을 것이다. 물론 각 잡지의 편집자가 단어를 손보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으나, 「인두지주」처럼 한 작품 안에 ‘가티(갓티)’와 ‘가치(갓치)’가 모두 등장하는 것을 보면 계용묵의 표기가 애초부터 혼란스러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계용묵의 초기 작품에서는 이처럼 평북 방언의 흔적을 뚜렷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반면, 1935년 이후가 되면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백치 아다다」를 기점으로 계용묵의 인물들이 평북 방언을 전면적으로 구사하게 된 것이다. 물론 1935년 이후의 모든 작품에서 평북 방언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방언 화자의 요건상 대부분은 지방을 배경으로 토박이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이라야 방언이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느 작가와 마찬가지로 계용묵 역시 서술자와 인물의 언어를 철저히 구분하여 인물들이 평북 방언을 활발히 구사하는 작품이더라도 서술자의 발화들은 모두 표준어로 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최서방」과 「제비를 그리는 마음」 또한 농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에도 인물들이 표준어를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1935년 이후의 작품들에서 별안간 평북 방언이 두드러지는 것은 유의미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 시기 작품들 중 평북 방언이 풍부한 「백치 아다다」(1935), 「장벽」(1936), 「고절」(1937), 「병풍에 그린 닭이」(1939), 「유앵기」(1939), 「십월」(1941), 「불로초」(1942), 「자식」(1943)을 대상으로 평북 방언을 문법, 음운, 어휘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1. 문법

- (ㄱ) 그들은 / 「엄메레!」 / 혹은 / 「뉘레!」 / 하고 너무도 깃겨워서
 병글병글 웃으며 다시 우르르 밀너 나가곤했다.(「장벽」, 22)
- (ㄴ) 그우에 또 한아이 생기다니!(「고절」, 165)
- (ㄷ) 저저 너 까타나 내레 못 죽누나!(「불로초」, 149)

- (ㄹ) 성해 너두 침보탄 아랐지?(「심월」, 242)
- (ㄴ) 그러나 어려운 높께 발이 논보다 나왔지 나아—(「백치 아다다」, 37)

위 예시들에서는 평북 방언의 특징적인 조사 형태를 볼 수 있다. 평북 방언의 주격 조사로는 ‘레’와 ‘이’가 쓰이는데 (ㄱ)은 ‘엄메(엄마)’와 ‘뉘(누이)’에 ‘레’가 붙은 모습을, (ㄴ)은 ‘한아(하나)’에 ‘이’가 붙은 모습을 보여준다. (ㄷ)의 ‘까타나’와 (ㄹ)의 ‘보탄’은 각각 표준어의 ‘때문에’와 ‘부터’에 해당하는 조사이다. (ㄴ)은 평북 지역에서 조사 ‘에게’가 주로 ‘께’로 쓰인다는 특징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 (ㄱ) 오마니 아무래두 곳에 가 보야가시요?(「병풍에 그린 닭이」, 85)
- (ㄴ) 그럼 머디 얹아 동이 트갔구나(「불로초」, 158)
- (ㄷ) 야! 야! 아다다야! 너 돈 얹건새헐? 돈, 돈말이야 돈?……(「백치 아다다」, 39)
- (ㄹ) 아니 이 밤똥에 함자 어딜 갔드랬소(「병풍에 그린 닭이」, 88)
- (ㄴ) 어즌나헐 어드멜 갔드랜(「병풍에 그린 닭이」, 89)

위 예시들은 평북 방언의 선어말 어미 ‘-갓-’과 ‘-엇-’을 보여준다. ‘-갓-’은 미래나 추측의 의미를, ‘-엇-’은 과거의 의미를 지닌다. ‘-갓-’과 ‘-엇-’ 뒤에 ‘ㄴ’으로 시작하는 의문형 종결 어미가 오면 ‘-갓-’과 ‘-엇-’은 각각 ‘-간’과 ‘-언’이 되기도 한다. 위 예시의 (ㄱ), (ㄴ)에서 선어말 어미 ‘-갓-’을 확인할 수 있고, (ㄷ)에서는 ‘-엇-’이 ‘-언’으로 변화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헐’은 ‘하+언’이다. 한편 ‘-드랫-’은 과거 완료시제를 표시하는 선어말 어미로서 (ㄹ), (ㄴ)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ㄴ)의 ‘-드랜’은 ‘-간’, ‘-언’과 마찬가지로 ‘ㄴ’으로 시작하는 의문형 종결 어미와 만나 형태가 바뀐 것이다.

- (ㄱ) 고로무뇨 가레 일을 잘 한답무다.(「유앵기」, 329)
- (ㄴ) 그렇게 갑자기 일을 되게하단 탈생감메 괴니(「유앵기」, 337)
- (ㄷ) 이전 난 아를 못낳갓녕거우다. 침이래두 얻어 보구레(「병풍에 그린 답이」, 85)
- (ㄹ) 「넌 그래서 내레 감추는걸 봤네?」 / 「요째끼 고름 누구레 감 쫓간 너밖에」 / 「글세 넌 어즈께 와 내수까락 감추구 밥 함자다 먹었네?」 / 「요째끼 내레 내레 감추는걸 봐서 글세?」 / 「넌 또 내레 감추는걸 뵈? 그래」(「고절」, 160)
- (ㄹ) 글세 침을 얻으문 집안이 편안하야디 그르문 님재레 더 불상하디 않갓습마(「병풍에 그린 답이」, 85)
- (ㅁ) 아들이와? 딸이와?(「고절」, 165)
- (ㄷ) 난 님재레 말해달내기 해는 봤쉐만 그만두시 그만뒤—(「유앵기」, 334)

위 예시들에서는 평북 방언의 다양한 종결 어미를 확인할 수 있다. (ㄱ)의 ‘-무다’와 (ㄴ)의 ‘-음메’는 각각 하오체와 하계체에 해당하는 평서형 어미이다. (ㄷ)의 ‘-구레’는 표준어의 ‘-구려’에 해당하는 하오체 평서형 어미이다. (ㄹ)~(ㅁ)은 의문형 종결 어미를 보여준다. (ㄹ)에서 ‘감쫓간’과 ‘봐’은 앞서 보았듯 선어말 어미 ‘-갓-’과 ‘-엇-’이 ‘ㄴ’으로 시작하는 의문형 어미를 만나 ‘-간’과 ‘-언’으로 변화한 것이다. ‘봤네’와 ‘먹었네’는 어간 ‘보-’, ‘먹-’에 선어말 어미 ‘-앗/엇-’이 붙고 평북 방언의 해라체 의문형 어미 ‘-네’가 결합하여 ‘보-앗-네’와 ‘먹-엇-네’가 된 것이다. (ㅁ)의 ‘-습마(습마)’와 (ㅂ)의 ‘-와’는 각각 평북 방언의 하계체와 해체 의문형 어미이다. 한편 (ㄷ)의 ‘-으시’는 평북 방언의 종결 어미 중 하계체 명령형 어미이다.

- (ㄱ) 아이구 참 집안이 망할내문 폐난이나 망하디 메느리 바람 니렸대는 소문 냉기구 망할건 머잉고 귀떼기레 있으문 너두 동

내서 너까타나 실실 허는 소리를 드렸갔구나 예 이년아!(「병
풍에 그린 닭이」, 85)

- (ㄴ) 따뜻한 아루곳테 펜안히 앉아서 놀구먹을 팔자를 마대느냐
구 허니께니 놀구먹는것보다 일해서 먹는게 더 귀허다나(「
유앵기」, 333)

위 예시들은 평북 방언의 연결 어미를 보여준다. (ㄱ)에서는 가정이
나 조건을 나타내는 ‘-문’을, (ㄴ)에서는 원인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니
께니’를 볼 수 있다.

2.2. 음운

- (ㄱ) 골년이야 골년! 명절날이니 나두 한 대푸야디 엄메 대주디
말나(「장벽」, 23)
- (ㄴ) 너 과이 다티진 않았지?(「십월」, 242)
- (ㄷ) 농사 허는집 티구 밥 굶는 집 없느니라. 농사 허는 나라티구
홍허디 않는 나라 없구—(「불로초」, 155)
- (ㄹ) 테게 보배 아니가?(「불로초」, 158)

전술했듯이 평북 방언은 ‘ㄷ, ㅌ, ㅌ’ 구개음화를 겪지 않았다. 위 예
시들을 통해 모음 [i·j] 앞에서도 ‘ㄷ, ㅌ, ㅌ’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ㄱ) 아이구 나두 맥이나 못뛰겠다 누구여기서 똥라(「장벽」, 25)
- (ㄴ) 글세 구덩이 파논줄을 다 알구두 빠데서.(「십월」, 242)
- (ㄷ) 시드른 있은 어서 떠러져야 새 순이 오력을 페느니라(「불로
초」, 157)
- (ㄹ) 아니 영감이 산막에 있으멘서 성놀이 청을 앓드르문 어등걸
모양이냐구 허니께니(「유앵기」, 333)

(ㄱ) 소리를 허멘서 쫘자! 내 메기니께니?(「블로초」, 155)

평북 방언에서는 모음 ‘ㄷ’이 ‘ㄱ’으로 변화하는 현상이 있다. 본래 어간 ‘ㅣ’가 어미 ‘ㄷ’와 만나면 [j]가 되지만 이 지역에서는 이것이 다시 ‘ㄱ’으로 축약되는 것이다. 위 예시 중 (ㄱ)의 ‘똥라’는 똥-어라→똥라→똥라의 변화를 겪은 것이고 (ㄴ)의 ‘빠데서’는 빠디-어서→빠더서→빠테서가 된 것이다. (ㄷ)은 어간 자체가 ‘ㄷ’으로 끝나고 (ㄷ), (ㄱ)은 어미 자체가 ‘ㄷ’으로 시작하므로 ‘ㄱ’으로 발음된다.

(ㄱ) 아니 내래 이게 거즈뿌렁이야 아 열섬이 못나?(「백치 아다다」, 37)

(ㄴ) 마즈막엔 이렇게두 말해보지 았었나 아니 그래 영감이 그 처지에 았전이를 농사집에밖에 더 살릴데가 았을건데 그래 존날 마른날 았이 코피가 닉두룩 따이나 파며 고생을 식히는이 보다(「유앵기」, 333)

(ㄷ) 삼년상을 츠리기가 밧부게(「장벽」, 20)

(ㄷ) 그래서 성눌이는 주의가 그렇지 았아서 그른 여자는 춤발구 았전이같이 김잘매구 배잘짜는 여자를 구한다니께(「유앵기」, 333)

(ㄱ) 깁진깁진 거러진 춤 허끝으로 모아 개여선(「심월」, 239)

‘ㅅ, ㅈ, ㅊ, ㅍ’ 뒤에 ‘ㅡ’ 모음이 오던 어휘들은 근대 이후의 표준어에서 ‘ㅣ’로 변화한 반면, 평북 방언에서는 ‘ㅡ’ 모음을 유지했다. 위 예시들에서 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ㄷ), (ㄱ)의 ‘춤’은 ‘침’에 대응하는 단어로서 ‘츠-움’의 결합이다. 선천을 포함한 평안남북도의 많은 지역에서 ‘침’을 가리킬 때 ‘춤’이라는 방언형을 사용하였다.¹⁰⁾

10) 김영배(1997), 『평안방언연구(자료편)』, 서울: 태학사, p. 100.

2.3. 어휘

1935년 이후의 계용목의 작품에는 방언으로 추정되는 어휘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 김이협의 『평북방언사전』에서 뜻을 찾을 수 있는 것 일부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개완하다(「유앵기」, 「불로초」): 개운하다 / 궁이(「불로초」): 구유 / 나주(「병풍에 그린 닭이」): 저녁 / 높(「자식」): 늪 / 님재(「병풍에 그린 닭이」, 「유앵기」): 입자. 자네. / 말째다(「장벽」): 불편하다 / 머이(「병풍에 그린 닭이」, 「유앵기」): 무엇이 / 모롱고지(「유앵기」): 산모퉁이 / 목고디(「유앵기」): 고집이 세서 남의 말을 좀체 듣지 않는 사람 / 무더기(「자식」): 무더기 / 문세(「심월」, 「자식」): 요령. 방법. / 불썰(「백치 아다다」, 「장벽」): 벌썰 / 서나(「병풍에 그린 닭이」): 남편의 비칭 / 소꾸막질(「백치 아다다」, 「자식」): 자맥질 / 소래기(「불로초」): 악을 쓰며 지르는 고함 / 어릅쓸다(「자식」): 더듬다 / 에미네(「병풍에 그린 닭이」, 「유앵기」): 에무네. 여편네의 비칭. / 재깎거리다(「불로초」): 재깎거리다 / 조마구(「백치 아다다」): 어린애 주먹 / 차부 없다(「백치 아다다」): 주착(主著) 없다 / 한모태(「백치 아다다」): 한바탕 / 헤농·지낭(「백치 아다다」, 「불로초」): 시늬

평북 방언의 친족 호칭어만 따로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아바지(「불로초」): 아버지 / 오마니(「병풍에 그린 닭이」): 어머니 / 엄메(「장벽」): 어머니 / 에미(「불로초」): 어머니 / 하라버지(「고절」, 「불로초」): 할아버지 / 큰아바지(「불로초」): 할아버지

이상에서 보았듯, 계용목은 1925년 등단 이래로 약 10년간은 작품 속에서 평북 방언을 거의 등장시키지 않다가 1935년 이후부터 두드러

지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 계용묵의 작품에 평북 방언이 뒤늦게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20-30년대 그의 문학세계의 변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계용묵은 20세기 초 조선의 문단(권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동시 간적으로 목도하면서 활동했던 문인이다. 신문학과 신문단이 갖 형성되어 가던 이 시기는 ‘기성작가’와 ‘신인작가’의 경계가 가장 불분명하면서도 역설적으로 가장 뛰어넘기 어렵던 때였다. 신문잡지의 독자 투고로부터 발아되어 현상문예와 추천제, 신춘문예로 분화되어간 근대 초기의 등단제도는 선자(選者)의 문학적 권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문인들을 계보화함으로써 점차 문단권력을 생성해갔다.¹¹⁾ 이와 더불어 3.1운동 이후 문예 지면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면서 등장한 월평과 합평회는 평자의 가치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작품을 구분함으로써 문단의 경계를 가시화하는 작업으로 수행했다.¹²⁾ 등단 초기에 계용묵은 어느 신인 작가와 마찬가지로 문단의 영역 안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싶은 욕망을 품었다. 그러나 몇 가지 일이 원인으로 작용해 그것은 실현되지 못하게 된다. 「최서방」이 『조선문단』에 게재되었을 때 계용묵은 선자가 최서해라는 것을 알고 몹시 분개한다. 이는 최서해가 계용묵과 불과 몇 개월 차이로 등단한 문인이었기 때문이다. 최서해에게 선자로서의 자격이 있었는지는 이 글에서 던질 질문이 아니나, 어쨌거나 이 일은 계용묵이 문단의 등단제도에 대해 크게 실망하도록 만든다.¹³⁾ 다음 작품인 「인두지주」도 문단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마찬가지로였다. 『조선지광』의 편집자가 이 작품에 대해 단순히 문장을 손보는 수준이 아니라 주인공의 행동을 고치는 정도로 개입했던

11) 정영진(2017), 「등단제도의 정착 과정과 근대문단의 형성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49-51.

12) 강용훈(2013), 『비평적 글쓰기의 계보』, 서울: 소명, pp. 173-178.

13) 계용묵(2004a), 「한국문단 측면사」, 『계용묵 전집』2, 서울: 민음사, pp. 284-285.

것이다. 이 사실을 안 계용묵은 잡지에 투고하기를 관두기로 결심했고, 갓 받을 들인 경성 중앙문단으로부터 다시 거리를 두고 고향에서 홀로 습작에 힘쓰기를 택한다.¹⁴⁾ 등단 이래 10년간 발표된 소설이 4편에 그치는 것은 이러한 사정 때문이다.

고향에서 홀로 글을 쓰며 보낸 1930년대 전반기는 내적으로 충만했던 시절로 기억된다. 비록 발표의 기약은 없었지만 원하는 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새로운 필법들을 실험해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¹⁵⁾ 그러던 중 1935년 계용묵은 석인해로부터 동인지를 만들어보자는 편지를 받게 된다. 계용묵이 승낙하자 석인해는 정비석을 데리고 그를 찾아왔고, 세 사람은 인근의 문학청년들을 모아 선천에서 회합을 가진다.¹⁶⁾ 이렇게 시도된 동인지 『해조』에는 계용묵(桂鎔默, 1904-1961, 평북 선천 출신), 석인해(石仁海, 1911-1990, 평북 정주 출신), 정비석(鄭飛石, 1911-1991, 평북 의주 출신), 허윤석(許允碩, 1914-1995, 경기 김포 출신 → 평북 선천 이사), 김우철(金宇哲, 1915-1959, 평북 의주 출신), 채정근(蔡廷根, 1910-?, 평양 출신), 장일익(張日益, 생몰연대미상, 평북 용천 출신) 등이 참여했다.

『해조』의 편집 책임은 계용묵이 맡기로 했고 원고 의뢰까지 끝이 난 상태였다. 그러나 출자 책임자의 배신으로 이 동인지는 준비 도중 무산이 되고 만다.¹⁷⁾ 이 때문에 『해조』가 어떤 문학을 지향했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다만 동인 결성의 의도와 관련된 김우철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주목된다.

14) 계용묵(2004b), 「나의 소설 수업」, 『계용묵 전집』2, 서울: 민음사, pp. 302-303.

15) 계용묵(2004b), pp. 303-304.

16) 계용묵(2004c), 「어수선한 문단」, 『계용묵 전집』2, 서울: 민음사, pp. 311-312.

17) 계용묵(2004d), 「문학적 자서전」, 『계용묵 전집』2, 서울: 민음사, p. 318.

새로운 생명의 약동과 성장을 위하여 성스런 모성은 자식에게 유방을 내어 말기지만 오늘의 조선문단은 귀엽고 복스런 자녀 — 신진작가 시인들에게 젖꼭지를 물려주기는 고사하고 돌이켜 “이 붓새끼”처럼 확대하고 멸시한다. 노변의 잡초는 제아무리 사람들이 짓밟고 지나가도 다시 기운을 얻어 무성하게 성장한다. 우리들의 운명은 우리들이 타개해 나갈 수밖에 탄 도리가 없다.¹⁸⁾

‘오늘날의 조선 문단이 신진작가들을 의붓자식처럼 멸시한다’는 것은 당시 경성의 중앙문단이 일종의 헤게모니를 형성하며 진입장벽을 높여가는 것에 대한 불만을 의미할 것이다. 또한 ‘노변의 잡초가 되어 스스로의 운명을 타개해 나가겠다’는 것은 주변부에서라도 새로운 문학의 장을 일구어내겠다는 선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우철의 이와 같은 인식은 계용묵이 가져왔던 바와 상당히 흡사하다고 할 것이다.

김우철은 같은 글에서 『해조』의 창간준비가 “중앙문단에까지 파문이 흘러”갔을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당시 『조선문단』을 인계·발간하던 이학인은 계용묵에게 『해조』에 발표하려던 원고를 보내 달라고 청했다. 그렇게 해서 빛을 보게 된 것이 바로 「백치 아다다」였다.¹⁹⁾ 「백치 아다다」가 호평을 받으면서 계용묵은 다시 경성 중앙문단에서 작품 활동을 재개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경성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고향에서 다졌던 자신의 문학세계를 이어나가려 노력했다. 「백치 아다다」 이후 그가 발표한 「장벽」, 「고절」, 「병풍에 그린 닭이」, 「유앵기」 등은 모두 고향에 있을 당시 초고를 완성한 것들이었다.²⁰⁾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이 작품들에는 「백치 아다다」에서 시작되었던 평복 방언이 계속해서 활발히 등장한다. 중앙문단의 문인들

18) 김우철(1936), 「황혼과 묘비」, 『동아일보』 1936.2.8.

19) 계용묵(2004c), p. 312.

20) 계용묵(2004b), p. 303.

을 일차적인 독자로 삼고 그들에게 선택될 글을 쓰던 이전 시기와는 달리, 이 작품들을 쓸 때 계용묵은 대상 독자를 특정하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창작에 임할 수 있었을 것이다. 평북 방언이 풍부해진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계용묵이 그의 문학적 대화 상대자를 ‘경성’에서 ‘평북 선천’으로, ‘중앙문단’에서 ‘문단 바깥’으로, ‘타인’에서 ‘자기 자신’으로 변화시키면서, 그가 사용하는 언어에도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계용묵의 평북 방언을 무의식적인 자연어가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인 문학어로 인식해야 함을 알려준다.

3. 잡지본과 단행본의 대조를 통해 본 평북 방언의 확대

계용묵은 그간 발표한 작품들을 모아 1944년 첫 단편집 『병풍에 그린 닭이』(조선출판사)를, 1946년 두 번째 단편집 『백치 아다다』(대조사)를 낸다. 두 작품집에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병풍에 그린 닭이』	『백치 아다다』
「유앵기」(1939)	「장벽」(1936)
「행복의 탐구」(1939, 원제 「강가루의 조상이」)	「백치 아다다」(1935)
「청춘도」(1938)	「신기루」(1940)
「심원」(1938)	「부부」(1939)
「묘예」(1941)	「희화」(1940)
「시」(1942)	「이반」(1941)
「봉우」(1939)	「준광인전」(1939)
「병풍에 그린 닭이」(1939)	「자식」(1943)
「심월」(1941)	
「불로초」(1942)	
「시골노파」(1941)	
「목가」(1935)	

두 단행본을 출간하면서 계용묵은 원고에 크고 작은 수정을 가한다. 내용상의 변화도 존재하나, 여기에서는 언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두 단행본은 조선어학회가 발표한 한글 맞춤법 규정을 따르고 있다. 예컨대 「한글맞춤법 통일안(1933)」의 (4)항인 ‘설측음 ㄹ을 ㄹㅇ으로 적던 것을 ㄹㅇ으로 적기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갈나불은→갈라불은’, ‘틀림없는→틀림 없는’ 등과 같이 상당수의 단어가 다듬어졌고, (6)항인 ‘아무 까닭 없이 ㅇ 받침으로 나는 말은 ㅇ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뭉지르나→뭉 지르나?’, ‘뜻없는→뜻없는다’, ‘누명은 받고→누명을 벗고’와 같은 수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손길→손사길’, ‘일감→일사감’, ‘코구멍→코사구멍’, ‘어제밤→어제사밤’ 등 잡지 게재본에서는 없던 사이시옷이 단행본에서 등장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사이시옷을 한 글자로 표기하는 것은 1940년 한글맞춤법 통일안의 제2차 개정판에서 처음 나타났다가 1946년 제3차 개정판부터 다시 사라진 규정이다.²¹⁾ 이러한 한시적인 맞춤법 규정까지 계용묵의 단행본에 잘 반영되어 있다는 점은 그가 표준어 규정을 얼마나 충실히 따랐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단행본에서 작중 인물들이 구사하는 평북 방언은 잡지 발표본에서보다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ㄱ) 이애가 어느때라고 이리 너머졌기에더 괴니 그르단 멍기 못 지른다!(잡지 「장벽」, 19)

야레 이거 생 어느 때라우 그냥 너머졌네! 너 그르단 괴니 멍기 못 디른다!(단행본 「장벽」, 12)

(ㄴ) 네 입성 거참 곱구나 엄메가 해주든? 뉘가 해주든?(잡지 「장벽」, 21)

네 입성 거 참 곱구나. 엄메레 해주든? 뉘레 해주든?(단행본

21) 리의도(2013), 「한국어 한글 표기법의 변천」, 『한글』 301, 한글학회, pp. 173-176.

「장벽」, 18)

먼저 위 예시들은 표준어의 주격 조사 ‘가’를 평북 방언의 주격 조사 ‘레’로 바꾼 것이다.

- (ㄱ) 못가겐 시집이? 못가겐 이년! 못갈텐 죽어라!(잡지 「백치 아다다」, 32)
 못 가간? 시집이! 못 가간? 이년! 못 가가습 죽어라!(단행본 「백치 아다다」, 44)
- (ㄴ) 이년! 어서 뉘저라 뉘지기 싫건 시집으로 당장 가거라 못갈텐?……(잡지 「백치 아다다」, 31)
 이년! 어서 뉘데라. 뉘디기 싫건 시집으루 당당 가가라 못 가간?……(단행본 「백치 아다다」, 41)

위 예시들에서는 선어말 어미의 변화를 주목해볼 수 있다. 평북 방언에서 ‘가겠다’는 선어말 어미 ‘-갓-’을 사용해 ‘가갓다’로 쓰인다. ‘가겠니’와 같은 의문형에서는 ‘-갓-’이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 ‘-간’으로 바뀐 형태가 되어 ‘가간’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단행본의 표기가 정확한 평북 방언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잡지본에 나타나는 ‘가겐’은 ‘-겠+니’가 ‘-겐’으로 축약된 형태임이 짐작되는데, 이것은 표준어의 선어말 어미와 평북 방언의 문법 요소가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갈텐’과 ‘갈텐’의 경우에도 ‘갈 터이면’과 ‘갈 테니’를 평북 방언과 유사하게 변형시킨 단어라고 추측할 수 있다.

- (ㄱ) 너 나하고 않뉘련?(잡지 「장벽」, 25)
 너 나하구 않뉘간?(단행본 「장벽」, 30)
- (ㄴ) 아츨부터 놀네를 못가서 서들드니 웨벌서 오느냐!(잡지 「장벽」, 26)

아침부터 놀레를 못가서 서들더니 너 와 발씨 오네?(단행본 「장벽」, 31)

- (ㄷ) 메스친의말을 앓듣는 메직이가 통턴하에 어디있단말이야(잡지 「유앵기」, 335)

메스친의 말을 앓듣는 메직이가 통 천하에 어디 있단 말이와.(단행본 「유앵기」, 42)

- (ㄹ) 후— 여긴 멀구두 많기두 많은걸……(잡지 「유앵기」, 329)
후— 여긴 멀구두 많기두 많수다레!(단행본 「유앵기」, 28)

위 예시들에서는 종결 어미의 변화가 주목된다. (ㄱ)의 ‘안 뒤겠니’는 잡지본에서 어간 ‘뒤-’에 종결 어미 ‘-런’이 결합된 형태였으나, 단행본에 와서는 ‘뒤갓니→뒤간’이라는 과정을 거쳐 평북 방언의 표지를 지니게 되었다. (ㄴ)과 (ㄷ)은 각각 ‘-느냐’, ‘-야’라는 의문형 어미가 ‘-네’, ‘-와’라는 평북 방언형으로 대체된 경우이다. (ㄹ)의 ‘많수다레’는 먼저 ‘-느걸’이라는 어미가 ‘-수다’라는 평북 방언형으로 바뀌고, 여기에 표준어의 ‘-그러’에 해당하는 문장 말 조사 ‘-레’가 붙은 것이다.

- (ㄱ) 음전야! 그만 이러나 밥먹어라 이눔으고장을 응음전야 또 떠나자.(잡지 「장벽」, 27)

음전야! 그만 끝히고 이러나 저녁 먹어라. 이눔으 고당을 음전야! 우리 또 데나자!(단행본 「장벽」, 35)

- (ㄴ) 골년이야 골년! 맹질날이니 나두 한대푸야디 엄메대주디 말나(잡지 「장벽」, 23)

이걸 몰라? 골련이야 골련. 맹질날이니 나두 이걸 한대 푸이야디. 엄메 대주디말라 너 괴니?(단행본 「장벽」, 24)

- (ㄷ) 머 그런 녀자야 짝이 똑 맞는다누면 그래서 성놀이는 주의가 그렇지 않아서 그런 여자는 춤발구(잡지 「유앵기」, 334)

머, 그런 네자야 짝이 똑 맞는다나! 그래서 성놀이는 주의가 그렇지 않아서 그런 네자는 춤 발구(단행본 「유앵기」, 39)

다음으로 위 예시들에서는 평북 방언의 음운적 요소를 살펴볼 수 있다. (ㄱ)에서는 ‘ㄷ, ㅌ’ 구개음화가 적용되었던 ‘고장’이 다시 평북 방언형인 ‘고당’으로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ㄴ)과 (ㄷ)에서는 각각 ‘명질’이 ‘맹질’로, ‘녀자’, ‘여자’가 ‘네자’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평북 방언에서 ‘ㄷ’가 ‘ㄱ’로 발음됨을 반영한 것이다. (ㄱ)의 ‘저녁’도 마찬가지로 성질을 가진다.

(ㄱ) 이년까타나 골이 세누나! 시집을 못가겠으면 오늘은 어디든 지 나가서 돼지고 말어라 이년아! 이년아!(잡지 「백치 아다다」, 31)

이년까타나 골이 세누나! 시켄엘 못 가가슴은 오늘은 어드메 던디 나가서 돼디고 말아라. 이년아! 이년아!(단행본 「백치 아다다」, 41)

(ㄴ) 아니 안직 못이러나는게여!(잡지 「장벽」, 21)

(ㄷ) 야가 아니 상구두 못 니러나?(단행본 「장벽」, 15)

아저씨! 우리 저 멀니로 이사가서사라요 응! 아저씨?(잡지 「장벽」, 27)

아제야! 우리 어드메 멀리루 이새가서 살자우 응? 아제야!
(단행본 「장벽」, 33)

마지막으로 위 예시들에서는 어휘의 변화를 눈여겨볼 수 있다. ‘시집’, ‘아직’, ‘아저씨’가 각각 평북 방언의 ‘시켄’, ‘상구’, ‘아제’로 바뀌었다.

이처럼 잡지 발표본을 단행본에 수록하면서 계용묵은 의도적으로 평북 방언을 되살리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변화의 의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첫 단편집의 발문에서는 “내용의 손이 안 갈 수 없었”다며 다소 모호하게 개작의 이유를 들고 있고, 두 번째 단편집의 서문에서는 과거 검열로 인해 삭제되었던 부분을 되살

리는 데 주력했다고만 말하기 때문이다. 추측하건대 잡지에 게재된 계용묵의 작품들에서 평북 방언이 부정확했던 것은 그 방언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서였을 것이다. 평북 방언을 모어로 가진 데다 여러 번 퇴고하기로 잘 알려진 계용묵이 최초 발표본에서 수차례나 평북 방언을 실수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경북 경주 출신의 소설가 김동리도 독자의 이해를 위해 표준어와 방언 사이에서 절충을 꾀한 바가 있었다.²²⁾ 다만 김동리와 달리 계용묵의 작품의 경우에는 표준어와 방언의 중간태가 등장한 것이 작가에 의한 것인지 편집자에 의한 것인지 단언할 수 없다. 앞서 「인두지주」가 편집자에 의해 자의적인 수정이 이루어졌다는 일화 외에도, 계용묵은 작품 「심원(心猿)」의 제목이 편집자에 의해 「김선달」으로 고쳐진 채 발표되거나²³⁾ 그가 창작하지 않은 「출견」이라는 작품이 그의 이름으로 발표되는²⁴⁾ 등 문단과의 불화를 계속해서 겪었다. 또한 전술했듯이 당시 문단에 표준어와 방언 사이에 비가시적인 서열이 존재했으며 점차 표준어 규범성이 강해졌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계용묵의 잡지본 작품들의 언어는 온전히 그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단행본을 출간하면서 계용묵이 직접 과거의 원고를 두루 정비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평북 방언이 더욱 확연해졌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그만큼 그의 문학에 있어 평북 방언의 존재가 중요함을 입증해 준다.

1935년 이후 평북 방언을 풍부하게 활용하면서 창작되기 시작하고, 1940년대 중반 그 방언이 한 번 더 명료하게 다듬어지면서 단행본에 수록된 계용묵의 작품들은 그의 문학세계에서도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만하다. 계용묵은 1925년부터 1934년 사이의 초기 네 작품(「상환」, 「최서방」, 「인두지주」, 「제비를 그리는 마음」)을 두 단행본

22) 정승철(2018), pp. 123-124.

23) 계용묵(2004e), 「표제 한담」, 『계용묵 전집』2, 서울: 민음사, p. 248.

24) 계용묵(2004a), pp. 283-284.

에 수록하지 않았다. 여기에서도 1935년 이후에 발표된 작품들에 대한 계몽묵의 애정이 훨씬 두터움을 느낄 수 있는데, 이는 앞 장에서 보았듯 초창기 문단과의 마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1935년 이전의 작품들이 자신의 문학적 지향점과 잘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1920년대 중반 계몽묵은 중앙문단에서 경향소설이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을 보고 그 흐름을 따라 「최서방」과 「인두지주」를 창작해보았으나, 스스로 그 작품들에 염증을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²⁵⁾

반면 온전히 자신만의 문학적 세계관에 따라 창작된 1935년 이후의 작품들은 그 이전의 작품들에 비해서도 해방 이후의 작품들에 비해서도 계몽묵에게 애착의 대상이 된다. 이를 고려할 때, 1935년부터 해방기까지의 계몽묵의 작품들이 주변부로 밀려난 약자형 인물들을 반복적으로 형상화한다는 점은 그의 문학적 홀로서기와 겹쳐 이해할만한 지점이 있다. 그의 작품 속 언어 장애인(「백치 아다다」), 백정의 자손(「장벽」), 불임 여성(「병풍에 그린 닭이」), 폐결핵 환자(「유앵기」) 등은 소위 ‘정상적’이라고 규정되는 현실의 영역에 속하지 못하고 ‘불구자’로 낙인찍혀 계속해서 배척당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최서방」에서처럼 지배자에게 거센 반항을 하지도 못하고, 「인두지주」에서처럼 동지애와 희망을 얻지도 못한다. 그러나 계몽묵은 이 작품들을 통해 중심부/정상성보다 주변부/생명성이 더 강력하다는 그의 문학의 화두를 치열하게 밀고 나갔고, 1930년대 말에 이르면 현실에서 외면당하는 불구자 인물로부터 스스로 불구자이기를 자처하는 인물로 시각을 확장하기에 이른다. “불구의 고민속에서 오늘까지 찾아오던 진리”(「강가르의 조상이」, 202)란 바로 이러한 주변부성에 대한 계몽묵의 오랜 관심을 가리키는 것일 터이다.

25) 계몽묵(2004f), 「주기적으로 왔던 염증의 역정」, 『계몽묵 전집』2, 서울: 민음사, p. 208.

계용묵의 문학세계의 변모와 방언 활용 양상의 변모가 완벽히 상응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성의 표준어에서 평북의 방언으로 이행하는 계용묵의 궤적은 진화론/자본주의/가부장제 등으로 작동되는 근대문명과 멀리 떨어져 음지에서 살아가는 그의 인물들을 이해하는 데 어떤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 글은 계용묵의 평북 방언의 변화를 살피고 그 의미를 짚는 데 목적을 두었기에 작품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계용묵의 방언의식이 작품의 주제와도 관련될 수 있다는 본고의 관점이 설득력을 얻는다면 이를 바탕으로 계용묵의 문학에 대한 새로운 독해도 가능해질 것이다.

4. 나가며

이 글은 계용묵의 작품 활동 중 평북 방언이 두드러지게 확대되었던 두 변곡점을 검토함으로써 그의 방언 활용이 단순한 모어의 구사자 아니라 문학적 지향점과 관련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2장에서는 계용묵의 1935년 이전 작품들이 표준어에 기반하여 창작된 데 반해 그 이후의 작품들은 풍부한 평북 방언을 보여준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등단작 「상환」(1925)을 포함해 1935년 이전에 창작된 초기 작품들에서는 평북 방언의 특징적인 문법 요소가 쓰일만한 자리에 그에 대응하는 중앙어의 문법 요소가 쓰이고 있었으며, 평북 방언의 음운적 현상을 반영하기보다는 당시 표준어로 등재된 바를 따라 단어가 표기되었다. 그러나 「백치 아다다」(1935)를 시작으로 발표된 1935년 이후의 작품들에서는 문법·음운·어휘면 모두에서 평북 방언이 활발하게 활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1930년대 중반은 계용묵이 경성 중앙문단에 대한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평북 출신의 문학청년들과 함께 동인지 『해조』를 준비하던 시기였다. 그의 작품 속에 평북 방

언이 ‘뒤늦게’ 등장한 까닭은 이와 같은 정황과 관계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계용묵의 평북 방언을 무의식적인 자연어가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인 문학어로 인식해야 함을 알려준다.

3장에서는 계용묵이 일제강점기 작품들을 모아 1944년과 1946년에 단행본을 출간하면서 평북 방언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수정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단행본을 내면서 계용묵은 출간 당시의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라 문장을 전반적으로 손보았는데, 짧은 기간 동안 한 시적으로만 적용되던 규정까지도 충실히 반영하고 있어 그가 표준어 규정에 결코 둔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물들이 구사하는 평북 방언만큼은 잡지 발표본에서보다 단행본에서 오히려 더욱 선명해지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표준어와 방언의 중간 형태로 보이던 단어들이 이 시기에 확고한 평북 방언으로 대체되었으며, 음운상으로도 평북 방언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표기가 수정되었다. 계용묵이 단행본을 통해 그간의 작품들을 새롭게 선보일 때 평북 방언을 되살린 것은 그만큼 그의 문학에 있어 평북 방언의 존재가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일차적으로 계용묵의 방언의식이 다소나마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활발하다고 하기 어려운 오늘날의 계용묵 연구에 작계나마 활력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자 료】

- 계용묵(2004), 『계용묵 전집』1·2, 서울: 민음사.
_____(1946), 『백치 아다다』, 서울: 대조사.
_____(1944), 『병풍에 그린 닭이』, 경성: 조선출판사.
김우철(1936), 「황혼과 묘비」, 『동아일보』 1936.02.08.

【논 저】

- 강용훈(2013), 『비평적 글쓰기의 계보』, 서울: 소명.
김도경(2012), 「표준어의 이념과 ‘사투리’의 탄생 — 1920년대 문학에서 표준어와 방언의 문제」, 『어문학』 117, 한국어문학회.
김동윤(2010), 「전란기 제주문학과 『제주신보』」, 『영주어문』 19, 영주어문학회.
_____(2005), 「계용묵의 제주 체험과 문학」, 『영주어문』 10, 영주어문학회.
김명숙(2014), 「현대문학 작품에서 본 ‘추’의 형상의 심미적 가치」, 『한중인문학연구』 42, 한중인문학회.
김영배(1997), 『평안방언연구(자료편)』, 서울: 태학사.
김용성(2016), 「계용묵의 「백치 아다다」에 나타난 여성, 종교, 장애 다시 보기」, 『문학과종교』 21(2), 한국문학과종교학회.
김태엽(2006), 「김동리 소설에 나타나는 경북 방언」, 『우리말글』 38, 우리말글학회.
리의도(2013), 「한국어 한글 표기법의 변천」, 『한글』 301, 한글학회.
박태일(2009), 「1950년대 전반기 문학과 제주의 지역성」, 『한국언어문학』 71, 한국언어문학회.
신승희(2019), 「계용묵의 백치 아다다에 대한 인물 분석」, 『아시아문화연구』 50,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양운의(2014),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이형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60, 한국문학연구학회.

- 왕한(2019), 「해방기 귀환소설 「별을 헨다」의 현실성과 초월성」, 『춘원연구 학보』 14, 춘원연구학회.
- 이기갑(2003), 『국어 방언 문법』, 서울: 태학사.
- 이기문 외(2001), 『문학과 방언』, 서울: 역락.
- 이정숙(2011),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귀환의 양상 고찰」, 『현대소설연구』 48, 한국현대소설학회.
- 이주형(2005), 「계용묵 소설 연구」, 『어문학』 87, 한국어문학회.
- 정승철(2018), 『방언의 발견』, 파주: 창비.
- _____ (2017), 「채만식과 방언」, 『관악어문연구』 4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정영진(2017), 「등단제도의 정착 과정과 근대문단의 형성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의항(2019), 「평안도 방언 연구의 회고와 전망」, 『방언학』 30, 한국방언학회.
- 최강민(2016), 「광산과 광부 소재 소설에 나타난 재난의 서사와 질병」, 『어문논집』 68, 중앙어문학회.
- 최명옥(2003), 「서북방언」, 『방언학 사전』, 서울: 태학사.

원고 접수일: 2020년 7월 10일

심사 완료일: 2020년 8월 5일

게재 확정일: 2020년 8월 7일

ABSTRACT

Kye Yongmook and Pyongbuk Dialect

Yu, Seohyun*

This study asserts that the Pyongbuk dialect of Kye Yongmook's fiction extends beyond the simple use of his mother tongue and is in fact an intentional literary choice. In section two of this study, I illustrate that Kye uses Pyongbuk dialect not as an unconscious, natural language, but rather as an intentional literary language, by comparing his works prior to 1935 to those after, the latter of which display a significant expansion in use of Pyongbuk dialect. In 1935 Kye Yongmook began preparing the magazine Haejo, founded on a critical attitude towards the center of literary society in Gyeongseong, with a literary coterie of young writers from Pyongbuk region. It is likely that the 'late' entrance of Pyongbuk dialect into Kye's literary works is related to this context. In section three, I compare Kye's works as they appeared in magazines to their later collected forms, focusing on changes in dialect that appear in the revision process, to show that dialect was an important concern for Kye in editing and organizing his body of work. As major modern literary figures began to form an exclusionary literary center in Gyeongseong in the early twentieth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century, consolidating an invisible hierarchy of standard and regional dialect, the peculiarity and significance of Kye strengthening his use of Pyongbuk dialect at every turning point in his literary career is worthy of investigation.

